

스바리 신사와 후도 폭포

스바리 댐 옆에 있는 스바리 신사는 천 년 이상 전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작은 신사입니다. 이 신사에는 폭포 근처나 외딴 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부동명왕이라 불리는 무서운 형상을 한 명왕상이 모셔져 있습니다. 스바리 신사의 기원은 확실하지 않지만, 헤이안시대(794~1185 년) 말기에 전투에서 패한 호족 아베 일족이 부동명왕을 이곳으로 가져왔다는 설이 있습니다. 그 밖에도 무서운 형상을 한 명왕이 때때로 옆에 있는 후도 폭포에서 폭포수를 맞았다는 전설이 있습니다.

스바리 신사는 여러 차례 재건되었습니다. 처음 재건된 것은 1692 년이며, 19 세기에는 적어도 두 차례 재건되었고 최근에는 1938 년에 재건되었습니다. 또한, 1972 년 호우로 인해 발생한 스바리 댐의 홍수 이후 복구되었습니다. 신사 건물은 곤겐즈쿠리 양식으로 이 건축 양식은 배전과 본전이 같은 지붕 아래에서 H 자형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. 매년 7 월 28 일에 축제가 열리며, 부동명왕을 모신 동상이 대중에게 공개됩니다.

스바리 신사는 1938 년 이전에는 후도 폭포 근처에 있었습니다. 그러나 현재 후도 폭포는 스바리 신사에서 서쪽으로 몇 분 걸어가면 있는 스바리 댐의 수력발전소를 지나는 길을 따라 있습니다. 후도 폭포는 높이 약 30m 의 직폭 폭포로 절벽 표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샤워기 같은 물기둥이 아무것도 없는 곳을 지나 아래쪽의 용소로 쏟아지면서 폭포 바닥에 물보라가 만드는 안개가 끼게 됩니다. 주변의 녹음이 우거진 절벽에서 떨어지는 물 아래에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‘우라미노타키’(‘뒷면 폭포’를 의미함)라고도 불립니다.

떨어지는 폭포수 뒤쪽을 걸어볼 수도 있지만, 습기가 많으며 대부분의 바위가 이끼로 덮여 있어 미끄러우므로 걸을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.